



- ...우리의 目標...
- 1 在日僑胞의 救靈
 - 2 祖国統一의 實現
 - 3 韓・日兩國의 和解

朴大統領의 就任式에 즈음하여

박대통령각하의 제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심을 축하합니다. 민주주의원칙하에서 정견의차이를 막론하고 국민대다수의 득표로서 당선된대통령을 축하하는것은 당연한일이다. 그러나 취임을 축하하는것과 그정치에 찬동하는것과는 다를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금번 우리나라에서 야당은 취임식당일에 반대의스토를 선언한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언제나 메모·스토·혁명으로 반대파를몰리려는 수단은 써서는안된다. 정정당당하게 정치면과 선거전에서 국민의지지를받아 정부교체를 해야할것이다. 여당에 있어서도 대통령을 위시하여 국회의 절대다수의 수를 차지한다 하여도 야당이나 학생이 메모하고 투쟁하는 그런인인 부정선거란 있어서는 안될것이다. 당국은 조속히 부정선거내 용을밝히고 부정이 폭로된 곳만이라도 재선거를 실시하여 청백하고 양심적 인물이 선출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사리사욕과 명예심을 버리고 국가를위하고 국민을위하는 참된일꾼이 등장해주기를바란다. 이와같은 기본적인자세를 가지고 정치를 담당하시게된 박대통령을 위시하여 정부와 여당은 경제적인안정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 금번 박대통령의 취임인사에서 『빈곤 부정 부패는

공산주의와아울러 삼대공적』이라 하셨으니 국민한사람 한사람 역시 우리나라가 전형적인 빈곤에서 벗어나기를 염원하고있다. 그러나 빈곤이라는적과 싸운다

는것은 그리쉬운일이 아니다. 부강국인 미국에서도 해결치못한 문제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서 물러갈 약한적이 아니다. 국민된우리도 제각기 자기책임에서

이원수와 싸워나가자. 국가는 대통령한사람의 활동에서 좌우되는것이 아니라 국민의합심과 지도자를 받드는정신이 있어야한다. 그렇다고해서 폭군 밑에서 맹종하던봉건시대를 의미하는것은아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민주주의에 부여된 국민의 권리 언론의 자유에 입각하여 나라를위한 건설적인 비판을 서슴치 않고 할수있는 것이다. 현정부를 반대하는 학생들의 메모에

있어서도 정부기관은 덮어놓고 막기만할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전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정치를 해주는것이 참된정치인 이라하겠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각하에게 드리는말은 각하께서는 그 어리실때에 유년주일학교에 다니셨다고하니 지금 국가의 원수로서 주일학교에서 배운 하나님의뜻을 거울삼아 국민들에게 따뜻한사랑의 정치를 해주실것을 믿고바라는바입니다.

教会消息

《西成교회집회》

西成교회에서는 지난 월 17,18,19, 3일간 본국 서 울서오셔서 同志社신학부에서 신학을 연구하시는 반별집회목사님을 모시고 특별 집회를하였다. 매밤 60여명의 신도가 동였고 주일아침에는 130명이 출석하여서 하나님의 전을짓는 거룩한 청지기가 되라는 권면을받았다.

《關西지방기도會》

關西지방기도會(아슈람)는 지난5월4~5일에 河內長野 觀心寺町松中에서 열렸다. 關西지방 내의 교역자들이 전원이강사되었다. 마음문을 여는시간에 각자가 이수양 회에참석한 목적을 말하고 그목적에 따라서 기도하고 성경을배웠다. 24시간연속기도시간에는 밤새면서 기도할그치지 아니하면서 이수양회와 모든 교우와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은혜받

는시간에는 모두들다 참이수양회에 참석하여 은혜받았다는 간증을하고 명년에는 더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로서 믿음의부흥과 교회 의부흥을 하자는 제각기 약속하고 산을 내려왔다.

▲ 広島교회

広島교회에서는 지난 5월26일부터 6월 16일까지 2주간 단기성경학교를 개최하였다. 과목은 구약신학(최정수목사), 신약신학·교리(김신환목사), 전도법(김원치목사)였으며 이교(異敎) 세력이 심한곳에사는 신자들로 하여금 무장시키기 위하여 기독교의 근본사상인 학습과전도면에 집중시켜 실시했다. 출석인수는 매밤21명 평균이었다.

▲宝塚전도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도집회를 하였다. 5월29일·30일 양일간 매밤 40명이상이 출석하였다. 강사에는 新儀교회에서 시무

하는 정경희전도사가 수고하였고 關西지방 전도부와 關西지방여전도회가 후원했다. 큰받친것을 바란다.

▲ 「카나다」에 유학중이던 한재수목사는 「몬트리오」장로교 신학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우수한성적으로 받고 지난 6월 17일에 귀일했다. 앞으로 서남지방에 부임할 예정이며 동지방은 목회에 큰기대로 하고있다.

▲ 「하인드만」 선교사는 일년간 안식년으로 귀국하였다가 6월 23일 다시 임지에돌아왔다. 동경사무소에 계속근무하게 되었음으로 교우들의 협력기도를 바라고있다.

▲작년 9월 태풍으로무너진 東京調布교회당은 여러교회의 협력으로 훌륭히 교회당수리가 완공되었을니다. 당교회에서는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신 여러교회에 감사의 뜻을 포함과 아울러 오는 7월 23일(日) 오후3시에 완공축하예배를 개최하여 하나님께 감사를드리게 됩니다. 신도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며 참석을 희망 하시는분은 아래의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東京都調布市下石原1756 在日大韓基督教調布教会 tel 0424-83-4131

▲ 北部교회

봄마다 특별집회가 뭉이는 메 금년에도 田永福목사님을 강사로청하여 주일의예는 다음과같이 저녁에 뭉였다. 5월 25일(목) 三國전도소에서는 약80명이 뭉이고 26일(금)부터 28일(일)까지는 北部교회당에서 뭉였는데 그수는 평균 80명이었다. 26일 「용서의 대화」요한8:1-11. 27일 영생의대화」요한11:17-27. 28일아침「은사의대화」로8:35-29. 저녁「대화의생활」요한20:19-23. M·부-버의사상에 영향을받으신 목사님은 「신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말씀하셨다. 전과같이 듣는 사람들의 흥미속에 호소하는 부흥강사적인 설교가아니고 그이성에 더욱 호소하신것은 우리에게 유익했다.

全国高等部夏期学校案内

一九六七年度

例年の如く 本年も 次の要項で 全国高等部夏期学校が開かれますので 案内致します

一九六七年度 全国高等部夏期学校
校長 金元治

記

日時 八月一日(火) 受付午前十時より 三泊四日(金) 午後二時まで 四日
場所 三重県伊勢二見ヶ浦 浜千代館(電話0594-21050)

主題 「聖書と私達」 その二

講師 校長 金元治 牧師(西成)
教務 鄭壽千 牧師(堺)
一年A組 申英子 伝道師(川崎)
一年B組 李昌雨 牧師(大垣)
二年A組 金安弘 講道部(豊橋)
二年B組 黄在正 牧師(横浜)
三年A組 金信煥 牧師(広島)
三年B組 崔正洙 牧師(大阪)
ゲスト 河村政任 先生
(日本基督教団信徒会副会長)

費用 三、八〇〇円(申込金、会費、宿、食費共)

予備申込について

各教会高等部責任者がまとめて六月末日までに申込して下さい。(申込金は三〇〇円テキストを送ります)

携行品

聖書 讃美歌 筆記具 洗面具
寝巻 水着等

会場の交通案内

関東・中部方面よりは
近鉄 名古屋より 宇治山田駅まで
西南・関西方面 は
近鉄 大阪上六より 宇治山田駅まで
宇治山田より鳥羽行 二見ヶ浦下車
歩いて 三分

저 회 눈 이 밝 히 보 임

金 元 治 (西成教会牧師)

저회눈이 밝히보임 (누가복음 24:13~35)

一, 주 예수께서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끝까지 라는말은 있는사랑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사용하신다는말이다, 그사랑의실현으로서 제자들의발을씻으셨다, 지상에 육으로살아계실때뿐만이아니고 부활하신후에도 부활의민음을 넣어주시려고 엠마오 길가에가는 두제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믿음의이야기를 하셨다, 두제자는 예수님이 자기들과함께 이야기하시는 때도 예수신줄모르고 나사렛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후에 삼일만에 다시살아났더니 그러한사건을아느냐고 물었다, 업은애기 삼년찾는격으로 예수님과이야기하면서도 예수의 사전을아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아직도 영적인눈이 띄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인줄 알아보지못하였다, 그들은 영적으로는 눈뜬봉사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들의마음이 둔하고 믿기에 더대기때문에 부활의주를알아보지못한다고 그들을버리지아니하시고 다른곳에갈일도 제쳐놓고 그들과함께하룻밤 같이 유하시면서 성경을통하여 부활의민음을가르치셨다, 그다음날아침식사를하실려고 기도하실때 그들의영의눈이 밝히보여졌다 二, 그들은 예수님이 더멀리가실려고 하실때, 예수님에게 간청함으로 그들과함께주무시면서 부활의민음에 관한 이야기를하셨다, 그들은 완전한민음에들어가지는 못했으나 자기들보다도 더민음이 좋으신이에게서 민음에관하여 더 자세히알려고 억지로예수님을 자기들과함께 하룻밤 주무시게하셨다 민음은 공로로 얻는것은아니지만 우리는 더잘믿을려고하는 열심은 가져야한다 이두제자에게는 이러한열심이있었다, 눈먼자에게 주 예수는 흠을이겨 눈에바르고 실로암 못에가서 씻으라고 하셨다 실로암 못은 거리는 멀지않으나 봉사에게는

보이지않는눈으로 거기까지 걸어가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그들은 그어려운길을갔기에 실로암 못에가서 씻으니 눈이뜨여졌다 이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힘을가지고 민음에사용해야 한다. 三, 엠마오 길가에서 예수를만난두제자는 길가에서예수님이 성경을가르칠때에 그들의마음이 뜨거웠다 그마음이뜨겁다는것은 그들의마음속에 성령이강림한증거다 그러나그들은 성령강림한줄을 몰랐다, 그들의 영의눈이 아직뜨여지지 아니하였기때문이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령을주셨다 그런데 우리 영의눈이 밝히보지못하기때문에 성령을받지못한것같은 마음이둔한 믿음생활을할때가 많다 주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것처럼 오늘날 우리도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눈이 밝히보도록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굳게믿고 영의눈이 밝히보이는사람이되자.

계획을가지며 관리하며 준비를 갖추고있음은 세계만민이 하나님의 한가족이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것이 또 그리스도신도의 확신이다 그리스도신도 안에서 제시된 경륜이 역사의변천가운데서도 하나님의목적인 일치로 지양하고있다 바울이생각한것은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제시된 하나님의뜻한바 "이치"를 달성하시려고 지상에교회를 세웠고 이것을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교회최대의 사명이라고 하였다

할



말

살짝 하는일에는 나쁜일도 많으나 인간만사에는 성사와방법으로 살짝 하는일에 유익이 많다 큰나라를 다스리는 대정치가는 살짝 국민을 선한길로 인도하는 수완이 있어야 한다 치국자(治國者)는 如煮小鮮이란 말도있다 급하게 덩벼들다가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많되지는수가 많다 살짝 인심을 돌리게하는것이 참 지도자의자격이요 살짝 민음을 생활화 시키는것이 큰 일꾼이다 살짝은 모르게 어느듯숨어들고 감춰 저절로 은밀히 깊이 널리 길이 그리고 종내는 이루고야 마는것이다 교회는 살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신자는 살짝 마음속에 천국을 가지게 되는것이다 살짝 이끌고 살짝가르치고 살짝감동주고 살짝살려주는자가 위대한 일꾼이다 참애국자는 참전도자는 살짝꾼이다.

《 전영복 》

信徒를 위한 <에베소> 書研究

(4)

尹 宗 銀

西宮教会牧師

Cicero 는 "총명"을 구해야할것과 버려야할것을 아는지식이라고 설명하였고 Plato 는 "총명"을 사람이 무엇을 행하여야 하며 무엇을 행하여서는 않 될것을 우리로하여금 판단하게하는 의함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의 정의한것들을 보고 알수있음같이 "총명"은 우리의 매일생활의 실제문제를해결케하는 지식인것을알게된다 바울이 여기서 이말들을강조함은 예수께서 인간의심령을 만족케하며 지성적 "지혜"와 매일 복잡한 생활의문제를 우리로하여금 해결케하는실천의 지식 "총명"을 우리에게 가져오셨다는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지고오신 "지혜"와 "총명"이 동성하지 않고는 하나님뜻의 비밀을 이해할수없다 사람에게에는 반드시 이우가지의 지식이 필요하다 그리스도도는 영원과시간의 문

제를 해결하기위하여 우리에게 지혜와총명을 가져오셨다 (ii) 역사의목표 1:9~10 바울은 다시본론에 돌아오고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그 뜻의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말하고있다 신약성서에 "비밀" (musterion)이라는 용어가 21번 사용되었다 그러나 특별한의미로 사용하였

다신약성서의 비밀 이라는말의뜻은이해 하기어려운 무슨 신비스러운것의 뜻이 아니다 오래동안 감추었던 "무엇" (Something)이 제시 되었다는것이다 그럼으로 하나님의 뜻에 통하지 아니한자에게는 이해할수없는 그무엇이다 예를들어 설명한다면 그리스도교에 관하여 아무런 지식이 없는 불신자가 성찬식에배에 참석했을때 이성찬식에배가 그에게는 온전히 비밀일것이다 적어도 그는 무엇이 집행되고 있는가 가 납득되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야기나 성만찬의 이해기를

募 集 (數名)

○ 女子事務員 一般事務 高卒以上・30才迄

○ 男子 内 務 員 中卒以上経験不問

▲ 婦人高級セクター ニット製品 製造・卸

(待 偶)

通勤・住込自由 (男女)

(女) 本給二〇,〇〇〇〜二八,〇〇〇 皆勤手当 二,〇〇〇

交通費全額支給

(男) 本給二〇,〇〇〇〜四〇,〇〇〇 皆勤・役取手当 二,〇〇〇〜一〇,〇〇〇

交通費全額支給

※ 各種保険あり

※ 昇給賞与年二回

履歴書持参・詳しい事は面談の上

大阪市城東区蒲生町五ノ七四

株式会社 マルブン商店 (九三九) 三三五番 (九三二) 七五二番

古くても新しく

(韓国の希望)

田 永 福

2、3年、間を置いて韓国を訪うと、その間の歴史の流れと韓国の昨日と今日を、割合ハッキリした形で、見取り聞き取ることができる。2月23日、3年振りで金浦空港に降りて、日本と違った空気の味を満喫した。迎えてくれた人達の顔と声が、矢張り3年前と違っている。空港の雰囲気、3年前と大分違って来たことを感じた。3年前は朴大統領の就任の時であって、今日の韓国は3年間の空大統領統治の結果が、目に見えて隅々まで込み込んでいるのを感じた。その功罪、是非は別として、大きな歴史的転回をしたのが、目に映って来た。ニューコリアンホテルの竣工、半島ホテルに日の丸が垂れ下っていること、急テンポで復興して来た工業、目ざましい程に近代化して来たソウル市街、友人達の住居の改装、生活内容の向上、道ばたで見かける子供達の姿、そうした都市変貌と、忠清、慶尚、京畿各道の避地に見る姿と聞く声に、韓国が3年間に過去のテンポに数倍した速さで変って来たことを見聞きすることができた。

「古くて新しく」これが、今日の韓国その儘の姿である。古さその儘、古さのない新しさ、その何れもが、価しいものであって、「古くて新しい」ものこそ、価高いものである。

1945年8月15日は、新しい韓国を生み出した。然し、日本的なものの一掃、米ソの重さへの反駁に備えるべき、韓国の新しさは何もなかった。必然的に1909年以前の韓国を1945年に持出して来るより途がなく、古い李承晩博士が、古い韓国その儘の国づくりに乗り出すより外なかった。復古調が、真に愛国的であるような思考方式を打ち出して、年号を最も古い檀紀とし、政治形態を古い独裁政治とし、生活様式、文化全般、民族精神の帰趨一切を古い韓国に遂行させることによって、最も韓国的なものとした。これが解放後の韓国に大きな不幸を齎らしたのであった。廿世紀後半期の世界の中で、独り韓国だけが、十九世紀の姿で生きようとする事ほど、不幸なことではなかった。復古調の良さは、新しい今日のものを持っている者の復古調であ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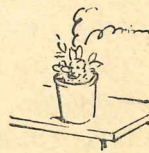
て、新しさのない復古調は、逆古に過ぎない。許政、尹潽善の時代を経て、ようやく韓国に「古くて新しくなければならぬ」ことを教えた。解放後、20年を経て、ようやく古くて新しい韓国へと背伸び出来る下地が出来たのであった。ジャンプの前のシッカリとした足固めが出来た。それは非常に精神的なものではあったが、今日の韓国、それは固い古さを韓国的なものとして地下深く基礎かためをし、その上に日一日と新しい韓国を韓国人の手によって、韓国のもので築き上げつつあるのである。決して、再び日本人の手を借りてとか、米国の後押しでと云うのではなく、韓国人自身の完全な自主独立

国民としてのものとして、経済に、文化に、国づくりに、又韓国人としての人づくりに見ることが出来た。民族精神にしても薄い表面的な民族精神として、小さいことにこだわる小国民的なものから、底深いツッシリと根を下した、大国民的な民族精神に成長しつつあるようである。表面的には親善的であり、融和的であるが、その底に強く動かない、民族的土根性を持つ民族として東洋に大きく発言するようになって来た。昨年来、多彩な国際会議がソウルで開かれた事もその一つの現れであろう。只惧むらくは今後、日本経済の進出に伴って、日本人の経済植民地的な姿勢を韓国人自体がどのように受け

止めるか、日本人がどの程度無反省な経済攻勢に出るか、歴史の上に於ける大きな課題であろう。こうした歴史的推移が、韓国の基督教界にも大きく影響づけていることを見る事が出来た。長い年月育って来た、宣教師的、植民地的基督教の姿勢をそのまま、戦後も持ち越して、韓国人としての信仰に根を下すことができないで、米国流の宣教師流の教派的紛争に道化役者の愚を重ねて来た、韓国基督教界が、大きく体質的に転廻しつつあるのを身と感じた韓国人自身の信仰の中に、欧米の神学的体臭に毒せられる何ら歴史的な関連を見出すことが出来ない。又関連づけねばならない何らの信仰的責任をも見出すことが出来ない。純粋に、卒直に、常に今日の信仰として、常に新しく韓国人が自分の信仰として全く自由なキリストへの信仰を持つべきでと云うことに気づいて来た。教職、信徒の別なく今日と云う時点に立って韓国

と云う場所に於て、宣教師或は外国人の指導を抜きにした、直接的な聖書とキリストへの信仰を持たねばならないと云う、静かに深く強い信仰姿勢に変わって来ているのを見逃すことの出来ない幸福を感じた。それはソウルに於いての集会、交り、清州の特別連合集会、安東、等の地域での対談に於いて肌と感じ取る事ができた。

今日の韓国を在りのまま見聞きして感じたことが「古くて新しい韓国」であって、秘かな38度線の齎らす不安を持ちつつも明日へと今日の足がために意欲的であることを多としてほのぼのとした歎びと大幅な希望に胸中を温めつつ、日本に帰って来たのであった。東洋の平和と世界の和解を祈りつつ。



在日大韓基督教会総会

教会教育の理念

教会教育の目的

教会の中には、時々教会教育に対する誤解があるようである。即ち、教会には伝道的使命は必要であるけれども、教育的使命は、必要でないかのように思っている。例えば一方では伝道は罪人を一回的に改心せしめて神の民とすることであり、これは神の御力で瞬間的な事である。教会は往々にしてこの業だけをして行けばよいと云う考えである。他方では教育は人間の計画と手段とによって長い年月を要してなされると云うので、教育を嫌うのである。

然し人が回心すればそれでよいのであろうか。回心後の人に対する配慮と指導をしなくてもよいのであろうか。又教会内で神に近づくないし、キリストを誤解し、心を閉じて受入れる事の出来ない精神状態にある者に、何の配慮もしなくてもよいのか。それらの人々をも我々は理解し、神の方に向かしめ、神の力に、接せしめる努力をすべきではなからうか。

教会教育の目的は、人間を変革せしめる神の御力を信じ仰ぐと共に、改心前後の全年令層の人々に、教会が教育的に配慮する事である。教会が伝道のわざなす時にも、教育的にこれを行。又、信仰告

白をした者達には、全きキリスト者となるように配慮し導くことを目的とするのである。

教会教育の主体

この様な教会教育は誰がなすのか。この教会教育をなす主体者は教会である。これは私一人が勝手になすのではなく、キリストの体なる教会がこれを執行するのである。

教会は伝道のみならず、教育、礼拝や愛の奉仕等の聖なる務を神から委託され、それに応答し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は、教役者だけがする仕事ではなく、その教会に属する全員が、それぞれのタラントに従って、責任をもってそれぞれ奉仕し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事業なのである。

教会教育の方法

我等は神の言を伝達するのであるが、それが単なる伝達に終らず、その伝達したものが相手方の人間の中に受止められて、それを育てねばならない。そして立派なキリスト者としての人間形成に至る迄の一切の過程を、教育的に配慮する必要がある。その為には我々は聖書の研究を深くし、それと同時にこれを伝えられるべき人間の性質・状態に関する調査や配慮をもしな

ければならない。我等が伝えるべき神の御言を理解せず、又これを受取るべき人間性を考えない様な愚かな事をしてはならない。我々の務をよく果し得る為に、我々の教会・家庭や地域社会等をよく研究しなければならない。我々は又、教会教育の業をよりよくなす為に、教室・教材や教師等をよく整えて、でたらめではなく計画的に、行き当たりばったりでなく組織的に、途中でやめるのでなく継続的に我等の務をなして行かねばならない。

教育の対象

今迄の日曜学校は児童生徒を主たる対象として来た。我々もこの対象を重視するのであるが、然しそれに止まらず教会に属する全年令層の信徒や子供達を対象とする。それは教会の教育的配慮(牧会的配慮)教会内の一部にのみ制限されるべきでなく、全部の人に向けられるべきであると信ずるからである。これかれの教会教育は、揺り籠から墓場迄の総ての人が対象となるのである。この点からも主日学校の名称は、「教会学校」と改名されるのがよいと思うのである。

我々の使命

我々は日本と云う国家社会

の中にあって、教会の聖務に召し出されている。我々は民族や国籍の別なく、この使命を果して行くのであるが、具体的には日本にある凡ての同胞への、宣教的使命を自覚している。それ故に我らは同胞の中に浸透し、その重荷をも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我等はこの同胞との連帯関係を長く持ち続ける国語を保持使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左右の学校では、それを教えている)それ故に我等は、教会で国語を教えねばならない。教会の持つ機能(聖務)の一つである「愛の奉仕」は、我等に国語教育の特殊な使命をも課していると信ずる。(教育局基本問題研究委員会)

詩

河 野 進

布 石

囲碁の名人が打つ石は
一つの失着がなく
みな生き生きと
にらみをきかせている
まして父なる神の構想は
どのように非情に
見えようとも
深い読みでつらぬいた
恵みの布石である。

忘 れ る

愛ほど
むぞうきに語られ
むぞうきに忘れられるものは
ない。

さあ高等部夏期学校 青年部修養会に！

(ルカ 24:13～35)

甚大な被害をもたらした遅い梅雨も過ぎ、夏の日射しの一段と強くなるにつれ、今まで多くの在日韓国教会青年に大きな収穫の場、深い思い出の場になった全修がほんとうに近づいて来ました。

今年の高等部夏季学校・青年部修養会は、8月1～4日の4日間、紀伊半島東南部の国立公園二見ヶ浦で開かれます。

主題は、この一年間、灯台福音新聞、各地方修養会、全修シリーズ等を通して、共に学習して来た「世に仕える教会」及び「聖書と私たち」です。

この一年間私達は、個教会の奉仕、個人として実社会の自分の持ち場の中で得たものを、個教会単位、地方単位で話し合い、学習し合ってきたと思います。個々の教会で、各々違った「世に仕える教会」像を模さくし、造り上げていらっしやることだと思います。それを分団討議、全体討議を通じて交換し、全国のレベルでの「世に仕える教会」像を造り上げていきましょう。そのために今回は一人一人が徹底的に話し合えるバズ、ディスカッション方式が採用されています。できるだけ多くの人が参加して、在日韓国教会青年会の「世に仕える教会」像を生み出して行きましょう。

今年の修養会の著しい特徴は、政治参与の問題が大きくクローズ・アップされていることです。私達の現在の法的な不安定さ、そして、外国人学校規制法が国会通過云々、韓日会談以後の状況、ベトナム戦争、中東の不安、母国、南北韓国の最近の対立の

激化等によるものです。このような多くの不幸の中にありながら、私達は、それに目をつむることは赦されない行為だとの判断のもとにこの問題はクローズアップされているんだと思います。この問題についても私達はトントンまで話し合えるように、今度の修養会はできています。そのような現状認識のもとで「世に仕える教会」像が今の私達には必要です。キリストに集められた兄弟として、祈りながら、模索し求めて行きましょう。

レクリエーションに関して、レクリエーションそのものも専門のレクリエーション

担当者を当てると同時に、キャンプファイアー等を通して修養会生活を全面的に充実化をはかっていますし、また国立公園という風光明媚な所で私達の宿舎の前は海浜遊歩道と白砂の海岸が広がっていますから、自由時間、夜の就寝前の時間を通じて、水泳に語り合いに大いに楽しく過ごせる所です。

また、在日僑胞の福祉の問題結婚問題や、就職の問題、進学や疾病、その他、非行問題老人問題など多くの事が、何もされず放置されて来た問題も、私達がどうしてもとり上げねばならない事です。

(金元治)

在日韓国キリスト 教会の問題点に問う

(其の三)

神戸教会牧師 金瓊燦

在日韓国教会の問題点とは一体何んであるか、という質問に対して確信をもって答え得ることは困難であろう。問題点の中の一つ、二つを指摘して云々することは簡単であるが、それでは不十分である。我々が本当に問題にしなければならぬのは言語問題であるのか、それとも一世、二世の問題なのか、又は在日同胞の法的地位問題、教育、経済、政治的に対立している、南北の問題なのか。我々は在日韓国教会の問題点を考える時、一部の人が問題にしていることを取上げて、その解決を急いだり又特別の事情の下に置かれている部分的な問題を恰もそれを我々の基本

的な問題点であるかの如く考えて云々することは誤った姿勢である。

しかばH氏の指摘した問題点は取上げて論ずる必要がないというのか、それは否である。部分的なものを先に論ずることは基本的なものを論じようとする時、ややもすれば、その範疇を、時には間違った異なる範疇の中で問題解決に望むことになりがちである。

韓日会談に於て、日本政府は在日同胞に対して法的地位を明らかにしたが、その言葉の持つ意味と解釈は我々同胞の中で、まちまちに理解されている。一口に法的地位と簡単に言うけれども、その言葉の真の意味は如何なる意味な

のか、これを考えずに個人的な自由解釈では問題は解決されないものである。

我々が日本に在留し、又出入国について日本国内法令上どのような認め方をされているのか、又その在留にあたってどんな待遇を受けるように国内法令にて決められているか、これが問題なのである。韓日会談が成立したからとて、我々60万同胞が安心して永住が出来るようになるのは早合点ではないか。法的地位という単語の裏には出入国管理法及び外国人登録法によって、日本政府が管理をしていることなど知って置かねばならぬ。従って其処には在留資格というものがあって、その資格制度の運用如何によって在留許可にもなり、又不許可にもなるのである。しかし在日韓国人は特別な事情により第二次世界大戦終了以前、日本人として渡日し、日本の各地に定着したことを特に考慮に入れて、日本政府は特別の法律を作り、これによって合法的に在留することが出来るように暫定的に認められているのである。ところがH氏の論旨によれば、在日60万同胞がこの日本に定着し——H氏の論じているのは次のどれを指して言っているかは知らないが——即韓国人として韓国籍を持ちつつ定着するのか、それとも帰化して新日本人として定着するのか、この二つの道を考えられるが、H氏は後者を意味しているように見られる。もしそうだとすれば韓日会談の内容等全然研究していない人の意見であると言いたいのである。その上韓国と日本との政治会談とは無関係に、在日60万同胞が我々自身ですべてを解決出来るのかのように思っているのしか見られないのである。

勿論、我々の為すべきことは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言うまでもない。しかし、その前に為すべきことがあることを忘れてはならない。在日韓国教会の将来に対するビジョ

ンはそう簡単に言えるものではない。時にこの過渡期に於てはなおさらである。

いましばらく将来に対するビジョンを見て行こう。そのビジョンも100年も200年の将来を見ながら、現在の諸問題を論ずるのはおろかである。問題は現実である。即、いま現実に在日韓国教会が置かれた「場」を考え、その使命をもう一度認識し、そして置かれた社会が、どんな社会であるか、その社会の状況はどうか、その環境は如何なるグループなのか、等々のような問題を先づ解明して行かねばならない。

言うまでもなく、在日韓国教会は日本という社会の中で、特に韓国系とか、朝総聯との相対立の中に在って福音の宣教に邁進しなければならぬのであるから、その前途は困難な問題が山積である。

そして又、日本社会に広く散在している同胞の生活状況や日本の社会からどんな待遇を受けていることや、を十分に調査し、そして検討して行かねばならないだろう。我々が将来のビジョンを語るにしても、この問題から出発して行かねばならないだろう。民団系には彼等のビジョンがあり、朝総聯系には、又彼等自身の大きなビジョンがある。この両方の間に在って在日韓国教会のビジョンは、どのような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かが問題である。我々は先づこの問題の解決に努力すべきであり、そして如何に彼等にアプローチ出来るか、又如何なる方法によってこの地に土着化すべきか、これが在日韓国教会の問題点なのである。

(つづく)

調布教会 感謝礼拝

7月23日(聖)午後3時

昨年9月の台風によって教会堂の全体が被害を受けたが、全国諸教会の協力と調布教会の努力によって新しく復興(大修理)して、来る7月23日(聖)午後3時より感謝の礼拝を捧げることとなった

第十五回 夏期全国教会 青年会修養会案内

開催要項

期日 八月一日(火)～四日(金)

場所 伊勢二見ヶ浦 潮香苑

電話(〇五九六四三)一二三〇三

費用 三、九〇〇円(申込金ハンドブック代含む)

定員 一八〇名

締切 七月十六日(日)迄

携行品 旧新約聖書、讃美歌、筆記具、洗面具、寝巻、水着等

主題 世に仕える教会

人の子がきたのも仕えられるためではなく、仕えるためである……
—マルコ伝十章四十五節—

(講師)

主 牧 黄 義生(総会青年局長・西新井教会牧師)

主 題 講 師 崔 京植(武庫川教会牧師)

特別講師 長谷川保(日本基督教団信徒会会長)

聖研講師 金 得三(熊本教会牧師)

金 瓊燦(神戸教会牧師)

李 仁夏(川崎教会牧師)

崔 昌華(小倉教会牧師)

丁 仁寿(平野教会牧師)

潘 秉燮(ソウル東園教会牧師)

朴 永培(同志社大学院院中)

申込先

大阪市東区東雲町二の二〇〇

(R.C.C内) TEL(七三)〇〇八〇

在日大韓基督教会青年会

全国協議会中央委員会宛

交通の御案内

○東京より宇治山田まで新幹線(近鉄名古屋経由)で三時間三〇分

○名古屋より宇治山田まで近鉄特急で一時間三〇分

○大阪より 二時間三〇分

○宇治山田から二見ヶ浦までバスで 十五分

○豊橋・蒲郡から鳥羽まで水中翼船で 一時間二〇分

○鳥羽から二見ヶ浦までバスで 十五分

○会場潮香苑はバス二見ヶ浦より海岸へ 3分

主催 在日大韓基督教会青年会

後援 全国協議会中央委員会

在日大韓基督教会総会青年局